

봄바람 휘날리는 ~ 꽃길을 걸어요

나주 한수제 물레길



나주시 경현동 '한수제 물레길'은 지난해 모든 구간을 나무 갑판 길로 새 단장한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했다. 4월 초에는 호수를 둘러싸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나주시 제공>

나주 경현동 한수제 물레길 85ha 호수 금성산이 병풍처럼 호위 흐드러지게 핀 꽃물결 '벚꽃 명소' 폭 2m 나무 갑판길 이번 주말 벚꽃축제 인근 카페, 통창 통해 호젓한 호수 감상 매년 2~4월 상춘객 몰려 인산인해

남쪽에서는 매화와 산수유, 개나리 등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달 말에 접어들며 봄의 전령사 벚꽃도 수줍은 자태를 드러냈다. '벚꽃 명소'인 나주 경현동 한수제 물레길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람이 일 때마다 하얗게 꽃물결을 이룬다. 이번 주말 열리는 '한수제 벚꽃 축제'는 나주 시민은 물론 전국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경현동 한수제 물레길은 최근 누구나 걷기 좋은 길로 다시 태어났다. 한수제 물레길은 85ha의 호수를 나주의 진산(鎭山) 금성산이 병풍처럼 두르는 풍광을 자랑한다. 나주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공사를 벌여 지난해 7월 물레길 조성을 마쳤다. 물레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m 폭의 넉넉한 길을 나무 갑판 길로 간편하게 오갈 수 있다. 시작점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또 다른 주차장까지 가는 1구간(0.8km)과 숲속 길을 걷는 2구간(0.7km)을 합하면 1.5km 구간을 20분 안팎 걸을 수 있다. 금성산 임도로 이어

지는 3구간(1.7km)으로 빠졌다가 돌아오면 모두 4600보 거리에 달하는 3.2km를 걸을 수 있다. 갑판 길이 맛있게 느껴질 때 금성산 숲길로 돌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한수제 주변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쉽게 물레길로 진입할 수 있다. 한수제는 눈발처럼 날리는 벚꽃을 보기 위한 방문객으로 3~4월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곳 인근에는 2개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봄 여행 명소였던 한수제는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사계절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산책길이 됐다. 드넓은 호수를 누워서 조망할 수 있는 침대형 의자와 야외 탁자, 그늘막 등이 길 곳곳에 설치됐다. 수변에는 LED 조명과 열주 등이 설치돼 밤 운치를 더한다. 한수제 바로 옆에는 경현동 인공폭포가 있다. 이곳은 주차장과 화장실을 갖췄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곳을 찾으면 높이 19m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은 1950년대부터 채석장이었지만 1972년 채석이 중단되면서 빈터로 남았다.

나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채석장이 있던 곳에 인공폭포를 마련해 볼거리를 만들었다. 한수제는 높다란 왕벚나무 340그루가 둘러싸고 있다. 이 밖에도 느티나무, 배롱나무, 왜성수크령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감상할 수 있다. 한수제 물레길 인근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여럿 있다. 탁 트인 통창을 액자 삼아 호젓한 호수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꽃 피는 계절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나주곰방 골목에 들러 배를 든든하게 채워도 좋다. 물레길 인근 반경 500m 안에는 나주향교와 금성관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김준호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차장은 "한수제 물레길은 지난 2018년 금성산 나눔숲체원 진입도로 공사를 계기로 순환형 산책로로 거듭났다"며 "물레길에서 시작해 경현동 인공폭포, 생태 물놀이장, 국립숲체원, 금성산으로 이어지는 여행 구간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백희준·김민수 기자 bhj@kwangju.co.kr

'역사도시' 꽃만 보고 갈 순 없잖아



조선 최대 규모 객사 '금성관'



배매산과 전망대 전경

◇'57년 만에 전면 개방' 금성산

해발 451m 나주의 대표적인 진산(鎭山)이다. 고려 시대부터 전국 8대 명산으로 불렸으며 고려 충렬왕 때인 '정녕궁'(定寧宮)이라는 작위를 받을 정도로 영험한 기운과 역사적 위상을 갖춘 산이기도 하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지난 57년간 1월1일 해맞이 행사를 빼고는 정상 등반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주시와 군부대 간 협약을 통해 산 정상부가 상시 개방됐다.

◇조선 최대 규모 객사 금성관

금성관은 나주가 역사적으로 호남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이다. 예로부터 외국 사신이나 정부 고관이 방문했을 때 묵었던 객사였다. 금성관은 조선 시대 객사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로, 2019년 보물 2037호로 지정됐다. '나주 답사 1번지'로 꼽히는 금성관 인근에는 나주목사내아, 목문화관, 나주향교 등이 있다.

◇'사진 맛집' 산림자연연구소

나주에 있는 전남산림자연연구소(빛가람 치유의 숲·산포면 산재리)에서는 잘 꾸며진 숲길을 만날 수 있다.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메타세쿼이아길과 향나무길은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된다. 전남산림자연연구소는 산림 치유와 숲해설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주변에는 다도 도래한옥마을, 산포 화지 흥림마을 등 볼거리가 있다.

◇국립나주박물관·반남고분군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 고대 고분 문화를 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고고학 전문 박물관이다. 주변에는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 꽃피운 마한 문화를 상징하는 고분이 곳곳

에 분포하고 있다. 상설전시실, 어린이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실감 콘텐츠 체험관 등을 갖췄다. 인근에는 삼한 시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전남도 기념물 '자미산성'이 있다.

◇영산포 등대·황포돛배

영산포 등대는 일제강점기 영산강 기항중점인 영산포 선창에 건립됐다. 1989년까지 수위 관측시설로 사용됐으며 현존 유일 내륙 등대 시설이다. 당시 번영했던 영산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황포돛배는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황토로 만들어진 돛을 단 배다. 1977년을 끝으로 지취를 감쳤으나 2008년 부활해 영산강을 유람한다. 알싸한 향기가 풍기는 속성 홍어 시식도 나주 여행의 백미(白米)다. 주변에는 영산포 역사갤러리, 철도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이 있다.

◇빛가람 호수공원·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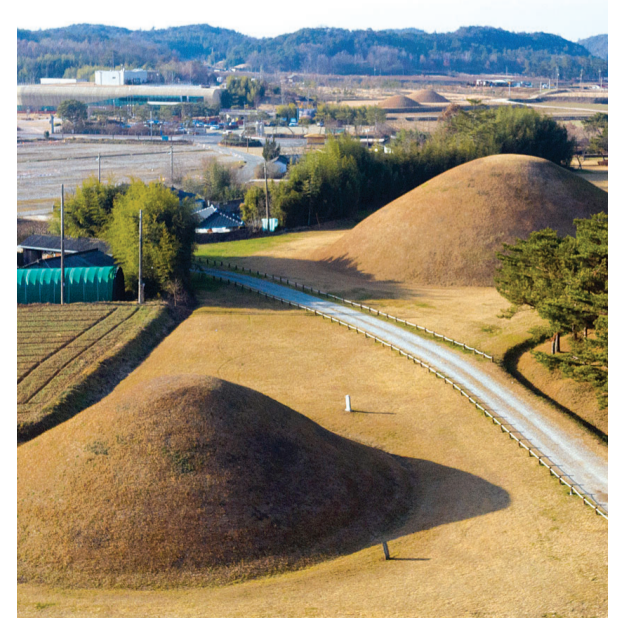
신축 건물이 즐비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와 또 다른 인상을 준다. 도시 가운데에는 빛가람 호수공원과 전망대가 있다. 배매산 정상부 20.7m 높이의 전망대는 혁신도시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모노레일을 타고 도시 전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고 호수공원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숲 체험원, 공연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영산포 등대·황포돛배

◇한반도 지형 성지 '동강 느리지 전망대'=느리지 전망대는 영산강 하류 지점 '한반도 지형'을 닮은 물돌이를 또렷하게 전망할 수 있는 곳이다. 국내 대표적 한반도 지형으로 알려진 강원도 영월 동강과 비교해 강폭이 500~600m 이상으로 넓어 웅장함이 느껴진다. 6월엔 형형색색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수국 길이 펼쳐진다. 느리지 전망대를 찾으면서 우습게 생태 공원, 식전 바위, 상방리 호랑가시나무를 둘러봐도 좋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한수제 전경



사적 제78호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고분군